광주 공연 꽃피울 '공연예술재단' 추진

국제공연예술제 등 굵직한 행사 총괄
통합 사무국 운영해 시너지 효과 높여
3월 출범 목표 … 市, 매년 10억씩 출연

광주국제공연예술제 등 광주 지역 대표 공연 행사를 통합, 개최할 광주공연예술재단이 3월 출범한다. 사진은 광주국제공연예술제에 참가한 '천개의 공감' 공연 모습.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제공〉

광주국제공연예술제 등 굵직한 공연 행사를 통합, 진행할 광주공연예술재단이 출범한다. 미술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연예술 부문의 진흥을 위해 꾸려지는 조직이다.

광주시는 새롭게 출범하는 공연예술재단을 현재 확고한 위치를 굳힌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계를 견인하고 세계에 광주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할 쌍두마차로 키워나간다는 복안이다.

시는 2일 '광주공연예술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연예술재단 설립을 본격추진한다.

3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공연예술재단은 시에서 추진하는 공연예술행사를 개최하고, 공연예술행사의 국내외 교류 사업을 맡게 된다. 또 광주시의 정체성을 담은 공연 예술행사 개발, 다양한 공연예술의 창작 보급 및 지원 등이 주 사업이다. 우선 출범 초창기에는 행사 개최에 주력할 예정이다.

공연예술재단이 진행할 행사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전국여성합창제 등 모두 3개다. 시가 추진하는 또 다른 대형 공연 행사인 임방울국악제는 '경연' 이 주를 이루고, 장르가 국악이라는 점에서 제외됐다.

시가 공연예술재단을 출범시킨 이유는 각 행사별로 운영 주체가 별도·구성되면서 추진 역량이 분산된다는 점 때문이다. 정율성국제음악제 등은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행사가 끝나면 노하우가 모두 사라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시는 3개의 행사를 함께 진행할 통합 사무국을 구성,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도 줄인다는 복안이다.

또 하나 공동사무국 운영을 통해 각 행사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재단 출범의 목적이다.

국제공연예술제, 정율성음악제, 전국합창제는 현재와 같은 독립 행사로 지속된다. 각 행사는 분과 위원회 형식으로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예술감독을 선임하며 배분된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게 된다.

시는 매년 10억원씩 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며 각 행사가 확보한 사업비와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공연예술제의 경우 지난해 1억8천여만원의 수익이 났었다.

시는 재단을 이끌 이사장으로 전국적인 인물을 영입할 예정이다. 지역을 넘어 전국화, 세계화의 발판으로 삼기위해서다. 현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중인 광주국제공연예술제만 오건탁 광주문화진흥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재임중이다. 새롭게 꾸려지는 이사진은 15명 내외로 조직된다.

시는 재단이 구성되면 6월 중국에서 열리는 상하이엑스포 공연을 준비중인 정율성음악제 행사 집행을 넘길 예정이다

공연예술재단이 자리를 잡은 후 공연예술의 창작 보급 및 지원 사업 등을 강화하게 되면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단순히 몇개 행사를 치르기 위해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역 공연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밖에 광주시의 지나친 개입은 자칫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부분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출범 초기 시가 지나치게 재단 운영에 간섭하면서 잡음이 많았던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광주시청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시는 재단 구성 등 행정적인 절차만 마무리되면 예산 확보 등에만 관여할 것"이라며 "광주공연예술재단이 광주비엔날레 재단처럼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며 광주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세계에 예술교육 로드맵 제시"

이대영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집행위원장

광주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포럼

"21세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서 중시되는 건 창조성입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는 창조적 인간 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문화예술교육과 관련, 전세계 각계각층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할 '예술교육 로드맵'을 발표하게 됩니다."

3일 광주를 방문한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이대영 위원장(50·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특히 행사 마지막날 발표하는 서울선언은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25~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이하 예술교육대회)는 전세계 190개국 문화예술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형 행사로 26개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예술교육대회를 홍보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자들의 네트워킹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포럼'을 추진중인 조직위원회는 그 첫번째 행사를 3일 광주비엔날레재단 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오는 5월 예술교육대회가 끝난 후에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서울 중심을 벗어나 광주·전남 등 각 지역의 예술적 가치가 서울에서 만개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조직위원장은 "본 행사는 서울에서 개최되지만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행사 즈음해 문화예술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각 학회, 단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는 어린이 교육과 관련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중이죠. 연극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프로그램이나 요즘 각광받고 있는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눈여겨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도 맡고 있는 이 조직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의견도 내놓았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문화공동체가 사라진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지역의 삶이 축적된 문화 프로그램을 찾기가 어려워요.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소문이 나면 이리저리 옮겨져 전반적인 문화예술교육관련 프로그램이 획일화 돼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명감 보다는 기획 아이디어만 갖고 뛰는 이들도 있고요. 국가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해 버려 소외계층이나 시골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죠."

이 조직위원장은 "공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함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노인과 유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어른 아닌 어른 '청년'

갤러리라이트 9일까지 기획展

조장은 작 '청년실업일조'

광주시립미술관 서울 인사동 분관인 갤러리라이트는 오는 9일까지 기획전 'Adieu! my ugly childhood'(안녕! 내 초라한 유년시절)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선미, 도병규, 박지만, 아트놈, 윤주희, 이영실, 이제혁, 이조흠, 전현숙, 정혜경, 조장은, 지동훈씨 등이 참여해 어른이지만 어른스럽지 않은 젊은이들의 일상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키드(Kid)와 성인을 뜻하는 어덜트(Adult)의 합성어인 '키덜트'(Kidult) 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청년실업 문제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젊은이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문의 02-725-0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설연휴 그림경매·공연

남도예술은행·도립국악단

설연휴를 맞아 오는 13일 남도예술은행과 전남도립국악단이 각각 진도 운림산방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흥겨운 행사를 연다.

남도예술은행은 이날 오전 11시 진도 운림산방에서 유명 작가들의 신작을 판매하는 '토요그림경매'를 진행한다. 이날 경매장을 찾은 컬렉터들은 인터넷 경매가 보다 70%가량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도립국악단도 이날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토요공연'을 마련한다. 이날 공연에는 마당놀이 창극과 25현 가야금연주, 무용극 등이 곁들어진다. 문의 061-287-52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버마 현대시 '어느 침묵하는 영혼의 책' 출간

임동확 시인 번역, 독재 고통 민중들 목소리 담겨

버마 현대 시인들의 시를 음미할 수 있는 번역 시선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됐다. '어느 침묵하는 영혼의 책'(문학들 펴냄)

이번 시집은 버마의 시 비평가인 마웅 타 노에의 '버마 시 선집'(원제 : Burmese Verse a Selection)과 버마의 대표적인 현대 시인인 마웅 스완 이의 영역본 작품을 임동확(51) 시인이 번역했다.

임 시인은 그동안 '버마를 사랑하는 작가들의 모임' 회장으로 활동해 오면서 국내 문학지에 여러차례 버마시를 번역하고 버마 문학을 소개해왔다.

'버마를 사랑하는 작가들의 모임'은 지난해 11월 4일 '버마시인 초청 문학교류의 밤'을 개최하면서 버마의 대표적인 저항시인 킨 아웅 에이를 한국에 초청한 바 있다. 이번 시선집의 제목은 그의 동명(同名)의 시에서 따왔다.

이번 시선집은 버마의 시와 시인들을 국내에 알리고 독재로 고통 받고 있는 버마 민중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시인은 '옮긴이의 말'에서 "버마의 시인들이 유난히 자주 사용하는 달과 별, 안개와 꿈은 버마인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과 이상적인 사회와의 간극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버마를 사랑하는 작가들의 모임'은 올해에도 버마 문학인을 초청해 국내 거주 버마인들과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버마문학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시인은 광주출생으로 전남대 국문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강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집 '매장시편'을 펴내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 시집 '살아있는 날들의 비망록' 등을 펴냈다. 현재 한신대학교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